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수사’ 종료

참사 과실 책임 규명, 부지매입 등 비위 수사도 마무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6명 구속, 15명 불구속 송치

경찰이 사상자 6명을 낸 광주 HDC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1개월 만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원인이 된 과실 책임을 규명할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지 매입·업체 선정 관련 비위까지 밝혀내 총 21명을 검찰로 넘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HDC화정아이파크 신축 사업 과정에서 토지 미등기 매입·업체 선정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토지매입 업체 A사 임직원 2명, 철거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 임원 1명은 화정아이파크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서 매수자가 바뀌었는데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전적 편의를 제공받아 업체 배임수증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 임직원 중 1명과 철거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도 금전 비위에 연루돼 배임수증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HDC 화정아이파크 수사 과정에서 토지 매입업체 미등기 전매 행위, 철거업체 선정 비리 등 구조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A사는 해당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 부지(23필지) 매입 계약을 추진하다, HDC현대산업개발 계열 부동산 개발사에 시행사 자격을 넘겼다.

이에 따라 토지를 사들이는 매수자가 A사에서 HDC계열사로 바뀌었는데도 이에 따른 매수자 변경 절차와 부동산 등기 이전 등을 하지 않았다.

A사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매수자를 바꾸든지, 직접 부동산 등기를 한 뒤 HDC 계열사에 이전해야 했으나 같은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 계열사가 부지매입에 직접 나선 경우 땅

값이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 A사가 여전히 매수자인 것처럼 시행사 변경 사실을 토지주(매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실제 한 토지주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선 항의하자, A사가 해당 1개 필지에 대해 이전 등기(토지 소유자 변경)를 한 뒤 다시 HDC계열사에 다시 등기를 넘긴 사실이 있었다.

이른바 ‘중간생략형 등기’ 수법을 통해 양도세·취득세도 일부 포탈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A사 임직원 2명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철거업체로부터 현금 1억 2000만 원과 법인카드(총 사용액 3000여만 원) 등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광주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참사 직접 과실책임자 16명과 법인 4곳을 검찰로 넘겼다. 이 중 ▲HDC현대산업개발(현장소장, 건축·

품질관리 책임자) 3명 ▲괄조(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사 가현건설산업(임원·현장소장) 2명 ▲무너진 201동 감리 1명 등 6명은 구속 송치했다.

또 타설 공정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확인된 가현건설산업 대표, 펌프카 장비 대여업체 대표 등 2명도 건설산업기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민원 부적절 처리 의혹으로 입건됐던 지자체 공무원 1명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 불송치했다.

이로써 참사 직후부터 이어진 화정아이파크 관련 수사는 중박 송치자 1명을 빼면 6명 구속, 15명 불구속으로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 전역의 아파트 신축 사업·재개발 관련 비리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의혹이 확인되면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0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김재환기자



광주 북구청,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재개

광주시 북구가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따뜻한 한 끼를 책임지던 ‘천사무료급식소’를 7일 재개했다.

김재환기자



광주 남구 ‘양림&크리스마스 문화 축제’ 한달간 열린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2022년 양림&크리스마스 문화 축제가 지난 13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한달간 대장정에 들어간다.

최이슬기자



광주 광산구청, “구정질문, 구정 혁신 계기로 삼겠다”

광주 광산구청은 광산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선 시민의 권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광주 남구119안전교육센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광주 남부소방서는 남구119안전교육센터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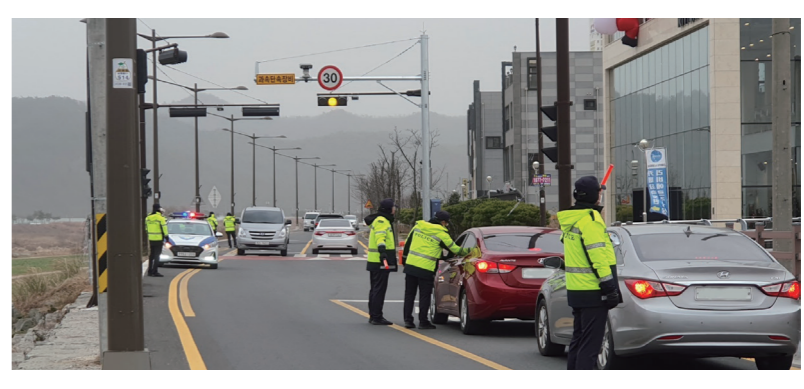
오유나기자



무안경찰,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원 2명에 감사장 전달

무안경찰서에서는 13일 운남남부신협, 무안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최근 방문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나주경찰,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합동점검

나주경찰은 겨울철 대설 등 자연재난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재해 우려 지역인 대설 취약지, 상습 결빙구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사장과 짜고 브로커도 개입”...고용보험 26억 부정수급 적발

부정수급자 269명·부정수급액 25.7억...형사처벌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을 통해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26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10월 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 전반에 대해 수급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을 포함해 269명이다. 부정수급액은 총 25억7000만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사업장을 비롯해 25개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주 25명으로부터 부정수급액 10억4700만원을 적발했다. 이 중 사업주 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급여를 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광주에 있는 사업장 등 8개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이렇게 타낸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총 1억1900만원으로, 부정수급자 9명과 공모사업주 8명은 모

두 송치됐다.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대규모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브로커 5명은 대규모 유희회사 설립 후 지인 등 가까 근로자 52명을 모집했다. 이후 고용보험을 취득·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이들을 나눠 가졌다.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은 총 4억 2500만원으로, 고용부는 브로커 5명을 포함해 부정수급자 57명을 형사처벌 조치했다.

수급자 개별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여전했다. 취업을 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이다. 부정수급자는 164명, 부정수급액은 9억56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현재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

상했다.

고용부는 또 현재 전국 210명에 대해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내년에도 조직적 부정수급 적발 등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번 기획조사 결과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액은 전년 대비 3.4배, 브로커 개입형은 2.3배 증가하는 등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히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 및 허위 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등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탐골공원 무료급식소 방한용품 나눠주기 행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탐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방한용품을 나눠주고 있다.

여수 한 아파트서 시각장애인 숨진채 발견

14일 오전 4시 40분께 여주시 한 아파트 11층에서 시각장애인 A(58)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지난 5월 장애인 체험의 집에 입소했으며 13일 오후 11시 46분

께 베란다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고 4시간여 만에 회생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판명

받았다.

여수시와 경찰은 A씨가 난간에서 방충망 수리 중 발을 헛디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현근기자

이번 주말 전국 ‘뽕뽕’ 내일부터 기온 뚝

14일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주말 사이 기온이 더 떨어져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정례 예보 브리핑을 통해 “오는 17일과 18일 기온 급강하로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파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충남서해안, 전라서해안, 제주도 등 매우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주말 해안가 및 도서 지역에 강풍특보 및 풍랑경보가 발표될 수 있고, 제주공항에 적설 가능성이 있어 여행객은 운항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다. 다만 16일부터 다시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해 18일께 강추위가 예상된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파특보가 어느 정도 해제됐고 대부분 해상에 발표된 풍랑특보는 이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해제될 것”이라며 “강풍특보는 이날 늦은 오후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고 한파특보는 중부내륙을 제외하고 내일 낮 대부분 해제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